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건설중에 있는 김화군피해복구현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건설중에 있는 김화군피해복구현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16차 정치국회의 사상과 정신을 높이 받들고 동부지구피해복구전투에 떨쳐나선 군인건설자들은 위훈과 혁신의 애국적방향을 뿌려가며 불과 40여일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자연재해가 휩쓴 고장에 로동당시대의 빛나는 창조물을 일떠세우는 기적을 안아왔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피해복구건설현장을 돌아보시며 이 고장에서 발생한 살림집피해, 농경지피해, 교통운수부문과 국도환경부문피해, 도시경영부문피해, 전력부문피해, 체신부문피해규모와 복구정형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현재 김화군에 새로 건설하는 읍지구 소총살림집과 리지역 단층살림집 근 1,000세대에 대하여 총공사량의 88%계선에서 공사를 다그치고있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우리 당의 정력적인 령도와 세심한 지도속에 인민군대가 세인을 놀래울 자랑찬 성과들을 이룩해 나가고있다고 하시며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금천군 강북리 피해복구에 이어 또다시 천지개벽을 이룩한 인민군인들의 애국적소행과 혁명적투쟁기질에 실로 커다란 감동을 받게 된다고 하시면서 인민군대가 안아온 이러한 결실은 단순한 물질적인 창조물이기 전에 우리 당이 가장 중히 내세우는 정신적재부이라고 긍지높이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군당위원장에게 군내인민들이 좋아하고 거둬들이고 그들모두가 좋아한다니 더 바랄것이 없다고, 시대적락후성을 털어버리고 우리 당이 구상하는 리상문명사회에



어울리는 문화주택들에서 인민들이 행복한 생활을 되찾는다면 그처럼 기쁘고 보람스러운 투쟁이 어디에 있겠는가고 진정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군당위원장과 건설부대 지휘성원들로부터 당에서 취해준 조치에 따라 애로와 난관속에서도 비약적인 속도로 훌륭한 살림집들이 일떠서는것을 보고 현지주민들이 밟는 속도보다 더 빨리 살림집이 솟아난다고, 이제는 하늘이 무너져도 무너지지 않을 집이 생겨 좋다고 했다는 반영을 들으시고는 우리 인민들이 그렇게 좋아했다니 정말 기쁘다고, 인민들의 솔직하고도 꾸밈없는 목소리에 힘이 난다고, 이제 건설한 살림집들에 대한 평가도 인민들로부터 받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피해복구건

설투쟁에서 설계와 시공에 이르는 건설 전공정이 인민대중제일주의, 인민존중의 관점과 원칙에 의해 전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피해복구지역에 새로 건설한 살림집들을 보면서 한가지 아쉬운것은 살림집설계를 일정한 기준을 정해놓고 일률적으로 한것이라고, 지역의 우수한 문화와 지대적특성, 인민들의 편의와 요구를 보장할수 있게 하는 원칙에서 독창성이 부여되고 주변환경과의 예술적조화성, 다양성이 적절히 결합되게 하였더라면 더 좋았을것이라고 하시면서 설계부문에서 반드시 경계되고 극복하여야 할 편향적인 문제들과 조선로동당의 건설정책의 중요사상에 대하여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인민군대가 이번에도 근로인민대중의 요구와 지향을 구현한 사회주의지방건설투쟁에서 거대한 공헌을 하고있다고 거듭 높이 평가하시면서 군인건설자들이 건축이란 자기 시대의 사상과 문명의 높이가 직관적으로 반영되는 사상문화높이의 측도라는것을 깊이 명심해야 한다고, 당과 인민에 대한 무한한 충효심을 간직하고 완강한 투쟁기질과 본래로 우리 당과 국가가 지향하는 문명세계의 높이에 맞게 지방의 특색이 살아나는 표준살림집, 문화주택들을 자기 고향집을 꾸리는 정성으로 더 빨리 더 훌륭하게 일떠세워 인민들에게 커다란 기쁨을 선물하기 바란다고 당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김화군으로 오가시는 로상에서 피해받은 여러 지역의

포전들에 들리시어 농사작황도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큰물피해를 입은 당시에는 내다볼수 없었던 좋은 작황이 펼쳐졌다고, 포전마다에 피해를 이겨낸 흔적이 력력하다고 하시면서 농장원들의 정성이 포기마다 고이고 그들이 바친 성실한 애국의 땀방울과 노력이 있었기에 례년에 없는 피해상황속에서도 이런 결실이 가능한것이라고 하시며 귀중한 농작물들을 끝까지 지켜낸 농업근로자들의 수고를 높이 치하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엄혹한 자연의 광란은 많은것을 한순간에 휩쓸어갔어도 피해지역들에 번듯한 새 집들이 일떠서 자기의 모습을 일신하고 농작물피해를 최소화하여 최고수확년도에 못지않은 알곡소출을 기대할수 있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올해는 정말 류례없이 힘든 해이지만 투쟁하는 보람도 특별히 큰 위대한 승리의 해로 될것이라고 신심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오늘의 시련은 우리를 락심하게 한것이 아니라 바위처럼 역세지고 더욱 전진하게 하였으며 우리 인민이 얼마나 충성스럽고 애국적이며 강한 인민인가를 더 잘 알게 하였다고 하시면서 이런 총직한 인민의 모습에서 자신께서는 대단히 큰 힘을 얻고있으며 이 세상 넘지 못할 난관이 없다는것을 다시금 절감하고있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전체 건설자들은 피해지역 인민들에게 하루빨리 행복의 보금자리를 마련해주시기 위하여 끝없는 로고를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같은 헌신에 격정을 금치 못하며 당중앙과 뜻과 발걸음을 함께 하며 결사관철의 합성드높이 살림집건설의 완공을 향하여 총돌격해갈 굳은 결의에 찬탄되어있었다.

본사기자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18차 정치국회의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18차 정치국회의가 9월 29일 당중앙위원회 본부 청사에서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회의에 참가하시었다.

정치국회의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들이 참가하였다.

또한 당중앙위원회 부장들과 국가방역부문 성원들을 비롯한 해당 인원들이 방청으로 참가하였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의 위임에 따라 나타나고있는 일련의 부족점들을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정은원수님께서 지적하고 국가적인 비상방역사업을 회의로 사회하시었다.

정치국회의에서는 악성비루스의 해당 문제들이 심도있게 연구토의 전과위험을 막기 위한 사업에서 되었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당창건 75돐을 맞으며 진행한 당 및 국가적사업들과 재해복구정형에 대하여 점검하였으며 이 사업들의 성공적보장을 위한 해당한 조직적대책들을 제기하고 토의결정하였다.

정치국회의에서는 또한 조직문제가 취급되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지도 밑에 진행된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18차 정치국회의는 전례없는 재앙과 재해위기사속에서도 당창건 75돐을 진정한 인민의 명절로, 전인민적인 경사로 성대히 경축하고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마감하는 올해를 승리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현실적인 조치들을

회의에서는 세계적인 악성전염병 더욱 철저히 강구하며 대중적인 취함으로써 나라와 인민의 안일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역사업들을 확충정비에 대한 보고에 이어 방역 방역분위기, 전인민적인 자각적 끝까지 사수하고 인민들의 생활을 안정향상시켜나가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부문에서의 자만과 방심, 무책임성 일치성을 더욱 고조시켜 강철같은 안전향상시켜나가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과 완만성을 철저히 경계하고 우리 방역체계와 질서를 확고히 견지할때 된다.

본사기자

## 새 집들이 어린 아버지의 은성

지난 9월 중순 황해북도 금천군 강북리마을 주민들이 새집들이를 하였다. 그날 입사한 강북협동농장의 한 농민은 재난을 당한 우리들을 위해 군대를 보내 주시어 새 집을 짓도록 하고 부역세간과 생활용품에 땀까지 갖추어주도록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보살핌은 친부모의 사랑보다도 더 다시고 한량이 없다고 하였다. 또 다른 한 주민은 여러칸짜리 덩실한 새 집이 생겨 아들의 결혼식을 서두른다고 했다. 강북마을 새 마을, 새 집들이 어디서나 행복년 이야기들이 끊이지 않는다.

나 벌어지는 복구건설이 다 그러하다. 인민의 아픔보다 더 큰 비상사태는 없으며 인민의 불행 행을 가셔주는것보다 더 중대한 일은 없다는 조선로동당의 숭고한 리념이 펼쳐진 인민보위전, 멸사복무전은 피해지역들의 모습을 사회주의선경으로 새롭게 일신하고있다. 인민의 운명을 책임지고 인민의 복리를 위한 일에서는 만족을 모르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인민사랑이 재해지역 인민들에게 잃은것보다 얻은것이 몇갑절 더 많은 새 집, 훌륭한 생활을 마련하여주고있다. 지난 9월 어느날 피해복구한 황해북도 금천군 강북리를 현지지도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폭우와 강풍으로 엄청난 피해를 당한 농촌마을을 짧은 기간에 흔적도 없이 털어버리고 새롭게 변모시킨것을 보시고 마치 다른 세상을 보는것만 같다고 하시며 기쁨을 금치 못하시

다. 그러시고는 주민들, 농장원들이 좋아하고 몇번이나 물으시고 그들이 좋아하는다니 정말 기쁘다. 그들이 좋다고 한다면 분명 우리당이 잘한 일이라고 하시었다. 조선로동당은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는 인민의 보호자, 어머니당이다. 인민의 요구와 리의를 최우선, 절대하시하는 경애하는 원수님이시기에 강북리의 새마을과 살림집들을 돌아보시며 인민의 마음, 인민의 목소리부터 헤아리시고 그들의 요구와 시대적미감에 맞게 선린리성, 선미학성의 원칙이 철저히 구현된 본보기 건축물들로 일떠서고있는것이다. 그이께서는 농촌문화주택의 본보기답게 체모를 드러낸 농촌마을을 바라보시며 농장원들의 요구대로 살림집을 지어주자고 하였는데 그렇게 하기 정말 잘하였다고, 농장원들의 요구에 맞고 농장원들이 좋다고 해야 많은 품을 들여 새로 건설한 보람도 크다고 하시었다.

피해복구에서 건설에 드는 자재소요량이나 부지면적과 같은 수치라산이나 국가적부담보다도 농민들의 편의와 리의를 더 중시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의 열도가 그 얼마나 뜨거운것인가를 헤아리게 하는 말씀이였다. 진정 그이의 열화같은 인민사랑에 의하여 자연의 광란이 휩쓸 피해복구건설장들마다에서 재난의 흔적을 말끔히 가시고 건설되는 모든 살림집들과 공공건물들이 인민의 요구와 시대적미감에 맞게 선린리성, 선미학성의 원칙이 철저히 구현된 본보기 건축물들로 일떠서고있는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그 사랑, 그 은정속에 자연의 재난을 털고 훌륭하게 일떠서는 새 마을, 새 집들이 울려퍼져 기쁨의 웃음소리, 행복의 노래소리는 10월명절의 환희를 더해 주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리 설

## 기적을 창조하는 힘의 원천

언제인가 외국의 한 신문에 이런 글이 실린적이 있다. 《조선의 첫째가는 위력은 일심단결이다. 일심단결의 위력의 밑바탕에는 김정은최고령도자의 인민에 대한 무한대하고 헌신적인 사랑이 있다. 그 불같은 사랑과 정은 전체 인민이 령도자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치며 하고있으며 단결의 위력이 최상의 경지에서 발휘되게 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지시하신 인민에 대한 사랑과 믿음, 고결한 인정미는 공화국의 제일국적인 일심단결의 근본 원천으로 되고있다. 그이께서는 인민을 위한 길에 한몸이 그대로 모태알이 되어 뿌려진대도 더 바랄것이 없다는 고결한 인생관을 지니시고 인민을 위한 고생에서 보람과 희열을 느끼신다. 최근 련이 들이닥친 자연의 재앙속에서 공화국인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열화같은 인민사랑과 헌신의 세계를 다시금 가슴뜨겁게 느끼였다. 그이께서는 인민의 아픔보다 더 큰 비상사태가 없으며 인민의 불행 행을 가셔주는것보다 더 중대한 사업은 없다는 인민사랑의 의지를 지니시고 피해지역 인민들을 위한 사랑의 조치들을 련이어 취해주시었다. 황해북도 은파군 대청리 일대의 피해복구건설현장에 대한 현지지도, 평양의 전체 당원들을 피해복구전구에서로 부르신 공개서한, 함경남도 걸덕지구의 태풍피해 복구와 관련하여 소집하신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6차확대회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피해복구한 황해북도 금천군 강북리를 현지지도하신 소식은 또 얼마나 만사람의 심금을 울려주었는가. 주민들, 농장원들이 좋아하고 거들 물으시고나서 그들이 좋아하니 정말 기쁘다고 하시며 이곳 주민들이 새 마을과 살림집에 정을 불리고 부디 행복하게 살며 이 고장에 언제나 복이 깃들기를 바라다고 축복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그의 자애로운 영상을 심장에 소중히 간직하고 피해복구지역에서 평양의 당원들만이 아닌 나라 인민들이 떨쳐나섰다. 지금 이 시각도 피해복구전구들에서 창조되고있는 자랑찬 기적과 위훈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인민사랑의 뜻을 충직하게 받들어가는 전체 인민의 애국충정과 단결력의 힘있는 파시로 된다. 령도자는 인민을 믿고 조성된 난국을 타개해나가는 인민은 령도자의 사상과 뜻을 결사의 의지로 받들어가는 바로 이것이 일심단결, 혼연일체의 위력으로 전진하는 공화국의 자랑스러운 모습이다. 그 누구도 가질수 없고 흉내낼수도 없는 일심단결의 무한대한 위력이 있어 피해복구전역에서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가 더 높이 울려퍼지게 될것이며 10월의 하늘가에는 장쾌한 승리의 축포성이 환희롭게 터져올로 것이다.

본사기자 김철진

## 원화리에 수백세대의 살림집건설, 새집들이경사

절세 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깃들어있는 평원군 원화협동농장에 수백세대의 아름다운 농촌문화주택이 또다시 훌륭히 일떠섰다. 새로 건설된 농촌살림집들은 우리 농업근로자들이 사회주의문명을 마음껏 향유하면서 보람찬 삶을 누리게 하려는 조선로동당의 크나큰 은정속에 마련된 행복의 보금자리이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계사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원화협동농장을 여러차례나 찾으시고 농장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였으며 몸소 명예농장원이 되시어 농장원들의 사업과 생활을 친어버리심정으로 보살펴주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도 혁명령도의 그 바쁘신 속에서도 위대한 수령님들과 혈연의 정을 맺고사는 원화리 인민들을 언제나 잊지 않으시고 대대같은 사랑

과 은정을 베풀어주시었다. 조선로동당의 위대한 농촌건설수상을 받들고 평안남도에서는 세멘트, 강재, 목재를 비롯한 국가적인 자재보장대책이 철저히 세워진데 맞게 강력한 건설력량을 편성하고 공사조직과 지휘를 짜고들었다. 영광의 땅 원화리를 사회주의무릉도원으로 더욱 훌륭히 변모시킬 예극의 마음안고 건설자들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기초공작리 트치고와 벽체축조, 내외부미장을 비롯한 방대한 공사과제를 앞당겨 수행하였다. 또한 락아

소, 진로소를 비롯한 공공건물들을 보란듯이 일떠세웠으며 지대정리, 강하천제방보수도 짧은 기간에 와닥닥 해제했다. 양지바른 산기슭에 아담하게 건설된 살림집들에는 여러칸의 살림방과 부엌 등이 생활상편리에 맞게 꾸러졌으며 집주변에 과일나무들이 뿌리내려 마을의 풍치를 한껏 높이고있다. 9월 29일 도안의 일꾼들과 건설자들의 축하속에 이곳 농업근로자들이 용겨온 노래와 춤판을 펼치면서 새집들이를 하였다.

본사기자









모란봉의 역사유적을 찾아서 (4)

옛 성벽을 따라 동암문으로

청류정에서 떨어지지 않는 절음을 옮겨 우리는 다음 로정인 동암문으로 향하였다. 로상에서 우리는 원상대로 보존되어있는 평양성의 일부를 볼수 있었다.

우리는 옛 성벽과 나란히 나있는 소로길을 따라 걸으며 리일심연구소에서 평양성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수 있었다.

그의 말에 의하면 평양성은 그 성벽이 모란봉 최상에서 청류벽을 거쳐 대동강

에서는 볼수 없는 독특한것으로서 우리 선조들의 창조적 재능을 보여주고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평양성은 내성, 외성, 중성, 북성으로 구분되는데 내성은 왕궁이 있던 곳이고 외성은 오늘날의 평민들이 살던 기본주민지이며 중성은 양반들이 살던 지역, 북성은 모란봉일대의 산성지역이라고 이야기 하였다.

그의 설명을 들으며 평양성의 규모에 대한 표상을 가질수 있었다. 《그럼 우리가 따라가는 이 성벽이 평양성 북성이라는 말입니까?》 《예, 정확히는 북성의 동쪽성벽의 일부입니다. 북성은 왕궁의 안정을 보호하기 위한 산성지역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가 걷는 이 길이 옛 군사들의 순찰로정일지도 모릅니다.》



고려약재로 효능높은 암치료약 개발

최근 공화국의 의학연구원 중앙연구소의 연구자들이 암진단과 치료 및 예방에서 큰 성과들을 이룩하였다. 연구소에서는 국내에 흔한 고려약재로 암치료에 특효가 있는 두꺼비진지삼향암주사약, 옥시마르틴주사약, 가시오갈피면역부활주사약, 너삼

함암주사약, 황금두름함암알약, 콩아민주사약 등을 제조하였다. 또한 여러가지 약물을 병합하여 리용하는 료법으로 악성림파종환자들의 생존율을 훨씬 높이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발전된 나라들의 독점물로 되어있던 암치료방범인 종물안에 방사성물질을 주입하여 암세포를 억제 및 사멸시키는 료법을 새롭게 확립하여 입안과 턱 및 얼굴부위의 악성종양을 비롯한 여러 부위의 암치료에서 큰 진전을 가져왔다.

한글글 손이 버섯장

손이버섯장은 고추장을 풀어 손이버섯을 삶은 음식이다. 손이버섯은 맛이 신선하고 영양가가 높으며 여러가지 볶음, 통종임 등을 만들어 먹으며 말리워 가루를 내서 양념감으로도 쓴다.

손이버섯을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기온음식감으로 손이버섯 150g, 보조음식감으로 고추장 10g, 파 10g, 참기름 10g, 깨소금 2g을 준비한다.



손이버섯장

사화

천인독 (5)

글 전철호, 그림 리성일

웅기의 두눈이 동그래졌다. 《바위돌하고 해봐야 물귀신을 이길수 있나?》 좌상로인이 손을 들어 독자리를 가리켰다. 《아무리 큰물이 사나와도 말짱 다 없애진 못했어.》 흉제방은 떠내려가서 없어졌지만 참나무말장은 멧개나 있었었다. 웅기의 눈에는 드문드문 남은 참나무말장이 꼭 앞이발들이 드문드문 빠져나간 늙은이의 입처럼 흉측해보였다.

좌상로인은 다시 마을앞쪽을 가리켰다. 《저 벼락바위를 보라구. 찍하면 벼락에 얻어맞고 날마다 내물이 들이받지만 끄떡없고 서있지 않나. 아마 레일도 모래도 여전히 저 모양새로 서있을거란 말일세.》 《그래서 바위가 아니오이까?》 《그렇게 바위돌을 깨다가 흉곡이 아니라 돌뚝을 쌓자는거네. 그럼 큰물을 이길수 있게 아니겠나.》 그 말에 웅기는 정신이 번

쩍 들었다. 《예 진작 바위돌을 굴러다 돌을 쌓을 생각을 못했을까. 웅기는 땅을 차고 일어섰다. 《좌상어른, 이젠 알겠소이다. 돌뚝을 쌓으면 우린 얼마든지 물귀신을 다스릴수 있소이다.》 웅기는 좌상로인의 손에서 쇠메를 받아들고 마을젊은이들과 함께 바위를 깎는 일에 달라붙었다. 쇠메를 휘둘러칠 때마다 보기 좋게 바위돌이 깨어져 나갔다. ... 또다시 온 마을이 제방쌓는 일에 달라붙었다. 녀인들은 개울을 파서 길을 뚫고있고 사내들은 바위를 깨어나다 돌뚝을 쌓아나갔다. 칠석물(음력 7월 7일에 내리는 비)이 지기 전으로 역사를 마치려던 서둘러야 했다. 사내들은 두레로 갈라서 일을 다그쳤다. 한때는 바위돌을 깨서 돌을 굴러오고 다른 때는 제방쪽자리에 돌을 척척 쌓아나갔다.



큰물이 돌제방에 얻어맞고 풍무리를 사란다는 소리를 전해들은 마을에서 아이들까지 쏟아져나왔다. 그들은 이전의 물란리때 같으면 큰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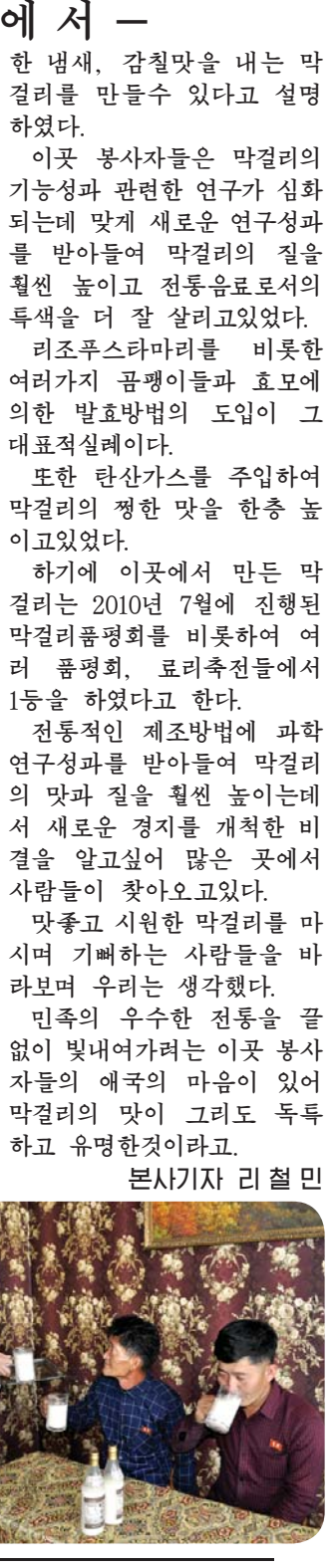
전통 말걸리의 특색을 살려



이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흰쌀, 밀 등의 농마질원료에 누룩을 넣고 발효시킨 다음 체에 밭아낸 발효로인 막걸리를 즐겨 마시었다. 일명 탁주 또는 탁배기라고도 불리우는 막걸리는 밑술을 막거른 술 또는 호린술이라는데서 유래되었다. 신맛과 단맛, 짠맛이 한데 어울려 새콤달달하고 상쾌한 막걸리를 집집마다 담고어놓았다가 농사일의 일감에 나누어 마시며 피로를 풀고 화목을 도모해온 우리 선조들이다. 평양시 사동구역 송신3동에 가면 우리 민족의 전통음료 막걸리를 봉사하는 청향막걸리식당이 있다. 평양시민들치고 청향막걸리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곳의 막걸리는 소문이 자자하다. 얼마전 우리가 이틀만 들어도 민족의 향취 넘쳐나는 이곳을 찾으니 뿐만 아니라 막걸리가 사람들의 인기를 모으고있었다. 이곳의 김경철책임자는 막

청향막걸리식당에서

한 냄새, 감칠맛을 내는 막걸리를 만들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곳 봉사자들은 막걸리의 기능성과 관련한 연구가 심화되는데 맞게 새로운 연구성과를 받아들여 막걸리의 질을 훨씬 높이고 전통음료로서의 특색을 더 잘 살리고있다. 리조푸스타마리를 비롯한 여러가지 고품격들과 효모에 의한 발효방법의 도입이 그 대표적사례이다. 또한 탄산가스를 주입하여 막걸리의 쉐한 맛을 한층 높이고있다. 하기에 이곳에서 만든 막걸리는 2010년 7월에 진행된 막걸리품평회를 비롯하여 여러 품평회, 로리축전들에서 1등을 하였다고 한다. 전통적인 제조방법에 과학 연구성과를 받아들여 막걸리의 맛과 질을 훨씬 높이는새로운 경지를 개척한 비결을 알고싶어 많은 곳에서 사람들이 찾아오고있다. 맛 좋고 시원한 막걸리를 마시며 기뻐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우리는 생각했다. 민족의 우수한 전통을 끝없이 빛내여가려는 이곳 봉사자들의 애국의 마음이 있어 막걸리의 맛이 그리도 독특하고 유명했기이라고. 본사기자 리철민



본사기자 리철민

전원기념물 대흥사향노루

평안남도 대흥군일대는 사향노루의 서식활동에 유리한 지역이다. 이 지대는 랑림산줄기의 남쪽끝지대로서 번두리에는 소백산, 랑림산 등 높고 험한 산들과 령들로 둘러싸여 있다. 대체로 해발 600m이상 되는 건조하고 해가 잘 드는 산성성이의 비탈면을 따라가느라하면 사향노루의 활동흔적을 쉽게 찾아볼수 있다. 사향노루는 사슴과에 속하는 짐승으로서 몸길이는 75~95cm이고 몸질량은 8.5~10kg이다. 암수가 다 뿔이 없으며 수컷의 송곳이는 길게 발달하여 입술밖으로 나와 아래로 드리워졌다. 다리는 가늘고 길며 꼬리는 3~6cm로서 매우 짧다. 수컷의 배꼽근처에 사향선

민족시문학계의 재사들과 그 유산

중세문학사를 빛내인 리규보

리규보는 고려시기를 대표 하는 이문인 시인이다. 그는 리인로, 립춘, 오세재, 리담지 등 《해좌철현》의 문인들과도 접촉하면서 이들의 문학적영향을 받았다. 젊은 시절에 서사시 《동명왕릉》을, 그 이후에 장시 《천보영사지》, 《3백2운시》를 창작하였다. 농군들을 마음껏 위해주지 못하는것을 죄스럽게 생각하는 리규보의 절절한 심정은 시 《농부를 대신하여 읊노라》, 《소를 때리지 말라》, 《헛곡식의 노래》 등에서도 울리었다. 시 《리내에서 농사군이 맑은 술과 리쌀밥 먹는것을 금지하는 령을 내었다는 말을 듣고》, 《머칠후에 다시

쓰노라》에서는 농민들의 빈궁, 판로들의 호의호식이 간신들의 악행과 나라의 간탈된 정사에 의해서 초래되었음을 까밝히면서 불공평한 법을 없앨것을 강하게 주장하였다. 시 《군수 몇몇이 띠를 받다가 죄를 입었다는 말을 듣고》, 《순창의 노래에 다시 회답하노라》 등에서 그는 통치배들의 착취와 호화로운 생활이 백성들에게 얼마나 막대한 해를 끼치는가를 폭로하였고, 《추위를 물리치는 서곡》, 《이불속에서 웃노라》 등에서는 통치세력들의 끝없는 탐욕과 위선을 예리하게 풍자하였다. 그는 일생동안에 방대한 량의 작품들을 창작하였다. 리규보의 창작은 그에 일관된 강렬한 애국사상과 현실비판정신, 근로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사랑의 감정, 당대의 의의있는 사회적문제

제기와 사실주의적진실성으로 하여 고려시문학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며 중세문학사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이불속에서 웃노라》 ... 사람이 사노라면 우스운 일 하도 많아 닳에는 바빠서 다 웃지 못하고 밤중에 이불속에서 혼자 웃노라 손뼉을 치며 소리내어 웃노라 ... 시는 고려봉건사회가 낳은 정신적불구자들의 추악한 정신도덕적면모를 풍자적으로 신랄히 폭로하였다. 시는 재치있는 풍자의 수법과 비판의 예리성 등으로 하여 고려 후반기 풍자시문학의 대표적 작품으로 되고있다. 김금성

속담과 뜻

◆ 강대공의 곧은뉘시질. 한가ροι이 날을 보내면서 좋은 기회가 오기를 기다린다는 뜻으로 이르는 말. ※ 뉘시는 갈구리처럼 굵은것이라야 고기가 물리지 곧은것으로는 고기를 낚을수 없는만큼 예당초 고기를 낚을 생각이 없이 뉘시대를 드리우고 딴 사색에 잠겨있는 뉘시질은 곧은뉘시로 하는 뉘시질과 같다는데서 생긴 말이다. ◆ 재굴에 말뚝박기. .말뚝이 쉽게 박힌다는데서 아주 하기 쉬운 일을 비겨 이르는 말. .만만한 대상이므로 제멋대로 다루기가 쉽다는것을 이르는 말.

◆ 살찐 닭과 만문한 죽순 옛날에 립색하기 그지없는 한 부자가 생일상을 차리고 손님들을 청하였는데 작인들에게는 닭알 한개씩만 나누어주었다. 하여 사람들은 큰비가 와도 마음놓고 길을 오갈수 있었다. 그후 돌제방은 수많은 백성들이 고향땅을 사랑하는 힘을 합쳐 쌓았다고 해서 《천인독》이라고 불리우게 되었다. (필)